A. Smith를 통해 본 '近代로의 移行' 問題*

金 載 勳**

A. Smith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은 ① 농업의 발전으로부터 국내제조업, 그리고 대외무역이 발전하는 자연적 질서가 봉건적 토지소유제도로 인해 역전되었다. ② 근대 서유럽에서 제조업의 발달과정은 '내포적' 경로보다 '외국제조업을 모방하여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고 외국상업의 자본을 이용하는' 경로가 우세하였다. 대외상업 발달은 제조업과 농업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적절한 정책을 강조하였다. ③ 그는 자유무역 주창자였지만 식민지 지배는 자유를 박탈해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박탈한다고 간주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 '농민층의 양극분해', 그래서 '국지적 시장권의 형성' 등에 관한 K. Marx, M. Dobb, 大塚史學 혹은 堀和生(1989), 中村哲(1990) 등과 대조를 이룬다. 프로토공업화론과는 맥을 같이한다. 임노동자계급의 출현에 농업 내부의 '압출(push)요인'과 농업 외부의 '흡인(pull)요인'을 동시에 파악하고, 해외무역과 국내 경제발전 간의 상호작용을 구명하였다. 또 산업정책의 추진 주체로서 국민국가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Ⅰ. 서 론

본고는 봉건사회로부터 근대 자본주의 경제로의 이행에 관한 A. Smith의 견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왜 갑자기 A. Smith인가? 그리고 봉건사회로부터 근대 자본주의 경제로의 이행과 A. Smith의 견해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경제사학에서는 대체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립과정에 관해 주로 마르크스의 견해를 중심으로 생각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중세로부터 근대사회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과정으로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정' 혹은 '시초축적'을 평가해 왔다.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있고 토지에 붙박혀 있던(adscriptus glebae=

* 심사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 대구대 경제학과 전임강사.

緊縛된) 중세의 農奴가 이른바 '이중의 의미의 자유'를 획득함으로써 근대적 임노동자가 대량으로 창출되었고, 이것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출발점을 이룬다. 즉 신학에서 原罪가 하는 역할을 경제학에서 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이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은 영국뿐이며 그래서 항상 영국을 예로 든다. 이행기에 관한 이러한 설명의 原形을 마르크스의 자본론 제8편 '이른바 시초축적'을 비롯한 여러 저작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과 더불어, 근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成立過程을 이해하는 열쇠를 왜 A. Smith에서 찾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이 글의 기본 출발이다. 물론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서술한 것은 '경제학을 과학'으로 정리한 것이지 근대사회의 성립과정에 관한 '경제사'를 정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학과 경제사가 별개의 것이 아님을 구태여 새롭게 설명하여야 할까? 우리가 IS-LM분석으로 잘 알고 있는 J. R. Hicks(1969)의 평가를 예로 들어 보자. 그는 경제사의 일반적인 설명이 마르크스주의의 범주나 혹은 그것에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한 것들을 잘 이용해 왔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시도하는 '역사이론'도 마르크스에 의해 시도된 역사이론에 훨씬 가깝다고 평가하였다. 그랬을 때 그는 마르크스가 자신의 경제학에서 일반성을 지닌 이론을 추출하고 그것을 역사에 적용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래서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적 감각에 호소하는 역사패턴을 만들어 낸 토인비나 슈펭글러 등의 장대한 구상보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훨씬 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은 스미스의 경제사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리는 흔히 A. Smith의 『국부론』이 경제학이라는 과학을 최초로 체계화한 경제학 또는 나아가 사회과학의 고전이라 평가한다. 스미스가 생존했던 1723-1790년의 시기는 제한과 속박과 간섭의 낡은 시대로부터 벗어나 자유방임과 해방의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는 분수령의 시대였다. 여기에 K. Marx는 그렇게 성립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계급문제라는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었을 때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또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었다. 즉 우리는 스미스와 마르크스를 통해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발전, 그리고 역사에서의 진보가 실현됨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양자는 모두 경제학을 과학으로 정립시킴과 동시에 역사발전의 의의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 가운데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성립과정을 나름대로 정리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스미스도 경제이론적 관심 외에 역사에, 특히 시민사회의 역사에 많

은 관심을 가졌고 훌륭한 저작도 남겼다(A. S. Skinner(1975), p. 154). 그는 1748-1751년간 에딘버러에서 '사회의 진보'에 관해 강의를 계속했다. 그는 법과 정부, 여러 시대 여러 혁명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려는 데에 자신의 의도가 있다고 했고, 이 의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리스와 로마의 형성과 붕괴로부터 시작해서 서로마제국의 붕괴 이후 유럽사회에서 전개된 진보를 설명하면서 역사를 개관하였다. 이것은 *Lectures on Juriprudence*(Report of 1762-1763) 제4권에서 자세히 서술되었고 *Wealth of Nations* 5편, 4편 '현재' 유럽의 기원에 관한 정교한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 그의 역사관찰은 세 가지 분명한 명제 위에 서 있다.

첫째, 사회변화는 경제발전에 의존한다.[1] 둘째로 인간은 모든 활동영역에서 특히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 이기적(self-regarding)이다. 셋째, 발전의 정상적인 과정은 네 가지 뚜렷한 경제적 단계를 낳고 각각은 우세한 생존양식을 반영하는 특정한 사회-정치적인 구조를 갖는다. 네 가지 사회단계는 수렵, 목축, 농경, 그리고 상업이다.[2]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A. Smith를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의 한국경제에서 분명한 것은 적극적인 외자도입과 수출주도공업화 정책이 일단은 큰 성과를 내었다는 것이다. 전후 동서 양진영의 분리 속에 자본주의진영에 포함되면서도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을 채택했던 남미국가들, 사회주의 국제분업권의 일부를 형성하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었던 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을 비롯하여 중국, 북한, 쿠바 등, 그리고 제3의 형태로서 민족혁명형 혹은 사회주의적 정책을 가미한 국가자본주의를 채택한 인도, 이집트 등, 이 모든 국가들이 이제 모두 대외개방형의 공업화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은 또 다른 例이다. 물론 여기에는 2차대전 이전의 세계경제와 이후의 세계경제의 기본적인 구도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블록경제가 해체되고 적어도 약소국의 정치적 독립은 달성됨으로써 최소한 관세자

1) 그는 경제발전은 그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물리적 조건인 방위의 용이함, 비옥함, 수상운송에 근접성 등을 충족시키는 Attica 혹은 유럽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관해서는 *Lectures on Jurisprudence*(Report of 1762-63; 이하 LJⓐ로 표시), iv for 23 Feb. 1763과 *Lectures on Jurisprudence*(Report dated 1766; 이하 LJⓑ로 표시), 30-31에서 상세하게, 그리고 *Wealth of Nations* I. iii과 Second fragments on the division of labour, Buchan Papers, Glasgow University Library에서도 비슷하게 서술되었다. A. S. Skinner, p. 155 참조.

2) LJⓑ, 149. LJⓐ, i27에도 같은 단계구분이 나타난다. A. S. Skinner, 위와 같음.

주권, 재정금융상의 자주권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점은 자본축적과 대외무역면에서 조건이 상당히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물론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의 한계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경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기초자본재 등 소재와 기술면에서의 자립을 달성하지 못해 성장과 수출을 하면 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를 벗어나기에는 요원한 시간이 걸릴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였던 세계 후진지역의 공업화 문제가 대외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통해 가능하게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민족혁명형, 자력경생형 혹은 내포적 공업화 전략을 떠받들던 이론적 근거를 재검토해야 하는 학문적 과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남겨져 있다. 농업을 중심으로, 중산적 생산자층의 광범한 民富형성이 가장 고전적이며 전형적으로 근대적 공업화를 달성했다는 관점에서, 민중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내포적 공업화에 바탕을 둔 국민경제를 건설하려 했던 중국, 북한 등 전후 일부의 시도들은 실패했음이 분명하다. 직접생산농민이 富(民富(commonwealth))를 축적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본제적 기반 위에 생산을 조직하는 이른바 '진실로 혁명적인 길'을 통해서만 근대화가 달성될 수 있고 했다. 기존의 일부 상인계급이 생산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는 '두 번째의 길'은 역사적으로 이행양식으로써 기능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자본제적 생산양식에 대한 장애물이 되고 후자의 발전과 함께 쇠퇴하게 된다는 견해(『자본론』, Ⅲ)와 이를 좀더 명확화한 소위 자본주의 이행논쟁에서의 M. Dobb 등의 입장은 직접 현실에 적용될 수는 없었다.

물론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이론을 잘못 적용한 오늘날 이론가 혹은 정책가들의 오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론이 일단 그러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면 그 이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론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A. Smith를 참조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필자는 가지게 된다.[3] 우리는 스미스의 관찰을 『국부론』 제1편 제1-3장과 제3편, 그리고 제4편의 제1-3장, 그리고 그외 그의 논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 경제사 교재에서 그 첫머리에 경제사

3) 일반적으로 경제학설사 혹은 경제사상사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학설사 속에서 특정 사상 혹은 학설의 의의 혹은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역사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혹은 현실에 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A. Smith에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모두라고 할 수 있다.

의 이론 혹은 경제사학의 발달을 스미스부터 설정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들 교재에서는 '경제사의 인식방법'(김종현, 『경제사』, 경문사, 1987) 혹은 '경제사학의 출발'(권병탁, 『일반경제사』, 박영사, 1986)을 모두 독일의 역사학파 F. List에 둔다. 이러한 서술관점은 부분적으로 타당한 면도 있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단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제발전단계를 역사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독일 역사학파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이다. 前근대경제에 대한 인식을 원시적 미개, 목축, 농업단계(리스트)나 자연경제(힐데브란트) 혹은 봉쇄적 가내경제, 도시경제(뷔허)로 했다는 점에서는 포괄적으로 '인간의 물질적 욕구 충족과정을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학문'으로서의 경제사에 가까운 점이 틀림없고 마르크스가 원시공산제,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로 설정한 점에서는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스미스도 역사발전의 단계를 수렵, 목축, 농경, 상업 등의 각 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A. S. Skinner).

스미스는 수렵단계는 가장 낮은 발전단계로서 북아메리카의 토착민에게서, 그 다음 발전단계인 목축단계는 타타르족과 아랍족 혹은 희망봉의 호텐토트족에서 실례를 찾았다. 목축단계는 항구적인 형태의 재산권의 도래가 권위와 복종의 형태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정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전 시기와는 달라졌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단계는 그러한 정부는 아직까지는 대체로 민주적 성격(원시공동체)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각 공동체가 종족간 전쟁에 적합한 형태로 존재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게르만족과 스키타이족이 서로마제국을 점령하면서부터 혼란이 시작되었고 이는 수 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토착 거주민들에 대한 야만인들의 약탈과 폭력이 도시와 농촌 간의 교역을 파괴했고 도시와 농촌은 황폐해졌다. 그러나 야만민족의 점령은 동시에 더 높은 유럽문명이 마침내 대두될 환경을 마련하기도 했다. 목축상태에서 농경으로 정착생활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제 토지점유가 권력과 영예의 원천이 되었고 따라서 長子相續制 또는 限嗣相續制가 일반화되었다. 영주와 농민 간의 안정적인 보호와 종속관계가 형성됨으로써 혼란과 폭력 속에서도 농민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져서 농민경제의 더 높은 형태를 이루기는 했으나, 경제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극히 한정적이었음은 분명하다는 것도 또한 스미스는 강조했다. 그리고 그 다음 발전단계가 '교환경제'로서 대체로 우리가 근대로의 이행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각

단계에 대한 스미스의 인식은 기왕에 일반경제사 혹은 서양경제사에서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때 그를 경제사 이론의 출발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다.

일본의 서양경제사 교재 중에도 松田智雄의 『西洋經濟史講義』 경우에는 역시 리스트의 독일역사학파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예컨대 石板昭雄, 長岡新吉 공저의 『一般經濟史』에서는 애덤 스미스로부터 시작한다.[4] 한편 중국의 경제학 및 경제사학자인 吳承明은 논문 "經濟學理論與經濟史硏究"(1959)의 제3절 '경제학 중의 경제사론'에서 스미스로부터 논의를 출발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스미스의 『국부론』 제3편, '論不同國家財富的不同發展'은 한 편의 경제사론으로서 그는 이윤과 위험에 관한 연구로부터 우선 농업발전으로부터 그 다음 공업, 최후로 국제무역이 발전해 간다는 경제발전의 '자연순서'를 제출하였는데, 로마제국 붕괴 이래 유럽 각국의 경제변화를 상세히 고찰한 후에는 유럽이 '반자연적 퇴화'를 하였다고 개탄하였다. 분명히 이러한 고찰은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논점을 실증한 것에 틀림없다. 즉 인류사회의 진보는 사회적 분업이 초래한 노동생산력의 증진으로 귀결되는데, 분업은 교환에 의해 촉발되는 것, '분업의 정도는 시장범위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경제사론의 최후 1장을 '도시상업이 농촌개량에 미친 공헌'을 논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근대경제사 영역에서 스미스에 관한 이러한 인식 위에서 본고에서는 스미스를 통해 근대 자본주의 경제로의 이행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근대경제에 관한 본고에서의 像은 물론 단순한 물적인 공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계급의 변화, 즉 사회구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내용구성은 제Ⅱ절에서 중세로부터 근대로 이행의 계기에 관해, 제Ⅲ절에서 근대 제조업 발달의 두 가지 경로에 관해, 그리고 제Ⅳ절과 제Ⅴ절에서는 농업개량과 제조업 발달의 중요성, 후진국의 근대화와 스미스의 '자유무역론'의 관련에 대해 각각 고찰한다.

4) 그런데 이들은 스미스의 역사인식은 '인류의 생산활동과 분업=교역이 발전함에 따라 자본(stock)은 증대하고 원시사회는 자연성장적으로 문명사회=시민사회(商業社會)로 이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여 『국부론』에서 전개된 스미스 견해의 일부만 잘못 소개하고 있다. (이병천 역, 동녘출판사, 1985, pp. 23-24). 본문의 吳承明의 소개와 비교하라.

Ⅱ. 중세로부터 근대로 이행의 계기

중세 말기 봉건경제가 쇠퇴하고 새로이 근대 자본주의 경제가 형성된 원인이 무엇인가? 마르크스의 지적에서는 봉건제의 쇠퇴는 외부충격과 이 제도의 내부관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다루어야 하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후자라고 하였다. 상인계급이 "생산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여 수공업자들을 선대제도 아래 종속시키면서 임노동자로 지배함으로써 자신이 제조업자로 변신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행양식으로서 기능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자본제적 생산양식에 대한 장애물이 되고 후자의 발전과 함께 쇠퇴"하게 된다고 보았다. 결국 새로운 질서는 그러한 상업의 발달을 외적 조건으로 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구질서 내부로부터, 즉 기존의 장원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적 농업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A. Smith도 원론적으로는 그러한 경로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사물의 자연적 질서'라 불렀다. 사물의 자연적 질서가 유지되는 한, 그리고 안전성과 수요증대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이 이를 더욱 촉진하여 농업(농촌)은 제조업(도시)보다, 국내 제조업은 대외무역보다 우선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기 때문에 성장중인 모든 사회의 대부분의 자본은 먼저 농업에 이어 제조업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외국상업에 배분될 것으로 보았다.

> "…… 이윤이 같거나 혹은 거의 같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자본을 제조업이나 외국무역보다도 오히려 토지의 개량과 경작에 투자할 것이다. 토지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자본을 자기의 감독과 지배 아래 잘 두게 되고 그의 재산은 무역상인의 재산보다 사고를 겪는 일이 적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 수공업자들의 업무나 구입하는 생활자료들은 완성품에 대한 농촌의 수요 증대에 비례해서만 증대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요는 개량과 경작의 확대에 비례해서만 증대될 수 있다. 그러기에 인간의 여러 제도가 결코 사물의 자연적 경과를 흐트러 놓지 않았더라면 여러 도시의 부유와 진보의 증대는 영토 혹은 농촌의 개량과 경작의 귀결로서,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여러 자본을 투자할 경우 이윤이 같거나 거의 같으면 농업이 제조업보다 환영을 받는 것과 같은 이유(안전하기

때문에)로 제조업은 자연히 외국상업보다 환영을 받는다.[5]

…… 그러나 이러한 사물의 자연적 질서는 근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여러 면에서 완전히 전도되어 있었다. 나라들의 여러 도시들에서 어떤 곳의 외국상업이 더욱 정교한 모든 제조업, 즉 원격지 판매에 적합한 여러 제조업을 도입했고 제조업과 외국상업이 하나가 되어 농업의 주요한 개량을 낳았다(『국』, 451)."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인간의 여러 제도가 그러한 자연적 성향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연적 질서가 전도되는 이유는 표현을 달리 하면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중세의 토지소유를 "게르만민족 및 스키타이민족이 로마제국 서부의 여러 속주를 침략한 이후(중세 이후) 長子相續法과 限嗣相續制로 토지가 상속이나 양도를 통해 소규모로 분할되는 것을 저지"하였는데, 그런 토제제도가 성립한 이유는 토지가 생존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권력과 보호의 수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대토지 소유자가 대개량가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데에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영토를 방위하거나 이웃 여러 영토로 지배와 권력을 확대하는 데 급급했고 토지의 경작과 개량에 배려할 겨를을 갖지 못했고, 또 법과 질서의 확립이 그에게 그런 겨를을 주었을 때는 그는 대체로 그럴 의향이 없었고 또 거의 언제나 필요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했다.

대토지 소유자들에게서 개량을 기대할 수 없다면 그들 아래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은 더 적었다. 유럽의 토지점유자는 모두 임의해약 토지차용인이었다. 그들이 취득한 것은 모두 주인을 위해 취득한 것이 되며 주인은 그것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었다. 그런 노예들에게서 어떤 경작이나 개량이 수행될 수 있더라도 그것은 모두 주인에 의해 수행된 것이었다. 고대 노예경작자의 뒤를 이은 프랑스 분익소작농의 경우에도 별 다를 바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투자하지 않은 영주가 토지생산물을 절반이나 차지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분익소작농의 뒤를 이은 농업경영자들은 몇 해라는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작권을 갖게 될 경우 농장의 개량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지만 그 점유가 매우 불확정적이었고 또 유럽의 많은 지방에서는 실제로 계약기간 소멸 이전에도 그 토지의 구매자에 의해 합

5) A. Smith, 유인호 역, 『국부론』, 1979, pp. 448-450. 이하에서는 본문 중 인용부분에서 (『국』, 인용 쪽)으로 표기함.

법적으로 토지소작권을 빼앗길 수 있었다.

게다가 농업경영자는 또한 지대의 지불 이외에 지주에게 거의 완전히 恣意的인 많은 부역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자작농민층이 의무를 진 공공의 노역 또한 사적인 노역에 못지않게 자의적이었다. 그들에게 부과된 공공의 조세도 부역노동과 마찬가지로 불규칙적이고 압제적이었다. 이렇게 일체의 방해 아래서 토지점유자에게 개량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모든 것 이외에 유럽의 옛 정책도 토지개량과 경작을 위해서는 불편했다. 첫째는 곡물수출의 일반적인 금지 때문에, 둘째는 독점판매자 중매인 및 매점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여러 법률과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의 여러 특권이 모든 농장생산물의 국내거래에 가한 제한 때문이다(『국』, 455-465).

A. Smith가 보기에 영국도 이런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가장 장기간의 토지소작권을 보호해 주는 법률은 1449년 제임스 2세의 법률에 의해 스코틀랜드에 도입됨으로써 영국 특유하게 성립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유익한 영향도 한사상속제를 통해 한사상속권의 상속인은 대개 1년 이상의 토지소작권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해되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스코틀랜드에서는 토지소작계약에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적인 노역은 폐지함으로써 이 지역 자작농민층의 상태를 크게 개선시켰다고 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자작농민층이 의무를 진 공공의 노역이 사적인 노역 못지않게 자의적이었다.

그래서 A. Smith는 근대적 제조업의 발달의 근원을 농촌이 아닌 중세도시 중심의 상업에서 찾았다. 자유를 누렸던 중세의 도시에서는 스스로의 노력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었으므로 당연히 생활상태의 개선과 생필품과 편의품 및 취미품 획득에 노력했고 따라서 당연히 필수생활자료 이상의 그 무엇을 목표로 하는 산업은 농촌에서 토지소유자에 의해 실시되기 훨씬 이전에 도시에서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정치적으로는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주민의 이해와 영주를 견제·약화시키려는 왕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영주계급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왕권 자체도 약화됨으로써 중세사회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고 했다.[6]

스미스의 이러한 견해는 봉건제의 쇠퇴와 자본주의 경제 성립의 원인을 파

6) LJⓐ iv. 154, 스미스는 이런 경향을 에드워드 1세 혹은 헨리 4세와 같은 왕들의 군사적 야심에 관련시키기도 했다.

악함에 있어서 농촌을 중심으로 한 봉건제 내부 모순의 전개와 상업의 성장 중 양자의 '상호작용'의 결과라 보면서도 주된 강조는 내적 모순에 주는, 상업이 낡은 생산양식 안의 내적 갈등에 박차를 가하는 정도만큼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M. Dobb(1980, pp. 132-133)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오히려 스미스는 거꾸로 상업도시 발달이 농촌개량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상업 및 제조업 도시의 증대와 그들의 부유함은 그것들이 속해 있는 농촌 여러 지방의 개량과 경작에 세 가지 방법으로 공헌했다고 보았다.

첫째는 농촌의 미가공생산물에 대해 큰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경작과 개량과 자극을 주었다.

둘째는 도시주민들은 대개 농촌의 상층계급이 되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획득한 부를 토지의 구매에 사용하였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가장 뛰어난 (토지)개량가가 된다. 농촌의 상층계급들이 단순히 화폐를 주로 소비하여 버리는 데 익숙해 있어 소심한 기업가인 반면 그들은 화폐를 투자하여 다시 이익과 더불어 회수하는 것을 주로 보는 사람들이므로 대담한 기업가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토지의 가치를 경비에 비례해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가질 경우 토지의 개량에 일거에 다액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들은 이익 및 성공을 해내는 데에 훨씬 적합하다.[7]

셋째는 상업과 제조업의 모든 효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다. 이것은 과거 농촌주민들은 이웃과 전쟁 및 상류층 사람들에 대한 노예적 의존이 계속된 가운데 생활해 왔었으나 상업과 제조업이 그러한 농촌주민들 사이에 차츰 질서와 훌륭한 통치,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과거 대토지 소유자들은 경작자들을 부양하고 남는 토지생산물 대부분을 교환해서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었으므로 그 전부를 그들 가정에서의 시골식 접대에 소비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많은 종자와 식객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이들은 그러한 부양 대신 줄 만한 등가물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로지 자비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권자에게 복종하여야만 했다. 봉건법의 도입이 자유보유지를 가진 대영주의 권위를 확대하기는커녕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임에 틀림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주민들 사이에 질서와 훌륭한 통치를 확립하는 데 충분하지는 못

7) 상인들이 토지에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지주집단을 형성한다고 보는 스미스의 견해는 오히려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한국경제사에서 조선 후기 혹은 그 이후 시기에도 상인들이 지주로 변신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역사의 퇴행적인 사례들로 간주하였다.

했다. 그것은 재산 및 생활상태를 충분히 변혁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봉건제도가 모든 폭력을 가지고도 달성하지 못했던 일을 외국상업과 제조업이 부지불식간에 달성했다. 상인과 제조업자는 대토지 소유자가 그 잉여를 자기자신을 위해 지출하는 방법과 대상을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그는 지대를 인상하기를 열망해서 그의 차지인과의 일정한 조건 아래 장기차지계약을 수용했다. 이런 식으로 차지인은 독립했고 이제 대토지 소유자는 더 이상 사법권의 질서정연한 집행에 간섭하거나 시골의 평화를 교란시킬 수 없었다. 결국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도시의 상업 제조업은 시골의 개량과 경작의 결과가 아니라 그 원인이 되었고 계기를 이루었다(『국』, 479-488).

스미스의 이러한 견해는 『자본론』 I 권에서 "상품의 유통은 자본의 출발점이다. 상품생산과 발달된 상품유통, 즉 '상업'은 자본을 발생시키는 '역사적 전제조건'을 형성한다. 세계교역과 세계시장은 16세기에 자본의 근대사를 열었다"고 한 마르크스의 언급과 일치한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본론』 I 권, "산업자본가의 기원"이라 이름붙여진 장의 앞부분에서는 산업자본가의 발생은 '달팽이걸음'의 방법으로는 15세기 말의 위대한 발견이 창출한 새로운 세계시장의 상업적인 요구에 부응할 방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장의 나머지 대부분은 이 '달팽이걸음'보다는 훨씬 빠르게 대규모 자본을 모으는 방도로서의 상업과 약탈에 관한 기술로 일관하였다.

Ⅲ. 근대 제조업 발달의 두 가지 경로

스미스는 제조업이 여러 나라에 도입되는 경로가 두 가지라 보았다. 첫째는 특정 상인 및 기업가의 자원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같은 종류의 외국 제조업을 모방하여 설립된 것이다. 이 경우의 그런 제조업은 외국상업의 자본이라 하겠으며, 13세기 초에 베네치아에 도입된 견직·벨벳 제조업, 옛날 폴랑드르에서 번영하고 엘리자베스 치세 때 잉글랜드에 도입된 고급직물의 제조업도, 리용 및 시피털피일즈의 견직물 제조업도 모두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이들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외국산 재료를 사용한 것들이었다. 베네치아의 제조업이 번영하고 있었을 때 롬바르디아 전역에는 한 그루의 뽕나무도, 한 마리의 누에도 없었다. 그들은 재료를 시칠리아나 레반트에서 수입했고 그 제조업 자체가 그리스 제국에서 이루어지던 것을 모방한 것이다. 폴랑드르의 제조업, 리용의 제

조업은, 스피털피일즈의 제조업에 쓰이는 원료도 전혀 잉글랜드의 산물이 아니라고 했다.

한편 가장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에서도 자연적 과정을 통해, 즉 그 자신의 힘으로 질이 나쁜 가정용 제조업이 차츰 세련됨으로써 성장한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관한 스미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자연적으로 기름지고 경작이 쉬운 내륙의 여러 나라는 그 경작자들의 부양에 필요한 것을 넘어 식료품의 다량 잉여를 낳는 것이며, 육상수송의 비용과 하천 항행의 불편 때문에 이 잉여를 국외에 보내기가 곤란한 경우가 흔하다. 그러다 보니 식료품이 싸게 만들어지고, 종사하는 많은 직공들은 다른 곳보다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을 값싸게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웃에 정주하게 된다. 그들은 그 곳 토지가 생산하는 제조업 재료를 가공하며 그들의 완성품을 더 많은 재료 및 식료품과 교환한다. 경작자들은 그들의 잉여생산물에 대해 전보다 나은 값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다른 편의품을 전보다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토지의 비옥도가 제조업을 낳은 것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진보가 토지에 반작용하여 더 한층 그 비옥도를 증가시킨다. 제조업자는 처음 그 이웃에 공급하고 차츰 그들의 일이 개량되고 다듬어짐에 따라 더 먼 시장에 공급한다. …… 이렇게 해서 리즈, 핼리팩스, 세필드, 버밍검 및 울햄턴의 여러 제조업이 자연스런 과정으로, 즉 자기들의 힘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제조업은 농업의 소산이다(『국』, 475-476)."

제조업이 발달하게 되는 두 유형에 관한 스미스의 설명은 우리가 익히 들어본 두 가지와 거의 유사하다. 공업화의 내포적 경로, 외연적 경로와 다른 그 무엇을 찾기 힘들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미스는 어느 유형 혹은 경로를 중요한 것으로 평가했을까? 그는 전자의 경우가 유럽 근대사에 있어 더 우세하고 보편적이라 보았다. 즉 유럽 근대사에서 그러한 후자의 제조업의 확대와 개량은 일반적으로 외국상업의 소산인 제조업보다 뒤져 있었다. 잉글랜드가 스페인 양모로 만들어지는 고급직물의 제조로 유명했던 것은 리즈 등 여러 곳에서 번창하고 있는 제조업 중 어느 것도 외국판매에 적합한 것이 되기 1세기 이상이나 전의 일이었다. 오히려 이 후자의 제조업의 확대와 개량은 외국상업 및 직접 그것에 의해 도입된 여러 제조업의 마지막이자 최대 성과인 농업의 확대와 개

량의 결과로밖에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라 하였다.

특히 원거리상업의 발전을 통한 공업발전의 중요성을 스미스는 강조하였다. 도시주민들은 언제나 그들의 생활자료와 원료 및 수단의 전부를 농촌에서 얻어야 했지만, 해안 또는 항행 가능한 하천변 가까이에 위치한 도시주민들은 반드시 그것을 이웃 농촌에서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것을 세계의 가장 먼 구석구석에서 자기들 산업의 제조품과 교환하거나 혹은 멀리 떨어진 여러 국가 간의 중계자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의 생산물을 교환하여 얻을 수 있다. 비교적 질이 좋고 개량된 제조품을 찾는 취미는 이렇게 외국상업에 의해 도입되고, 이 취미가 상당한 수요를 불러일으킬 만큼 일반화되었을 때 상인들은 수송비를 절약하기 위해 자신의 나라에서 제조하게 되었던 것이다(『국』, 461-473).

H. Myint는 스미스가 'learning-by-doing'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을 주목한다. 즉 "모든 나라에 대한 외연적인 상업이 자연적으로 혹은 오히려 필연적으로 가져다주는 모든 종류의 개선에 관한 지식의 상호유통 때문에" 개방경제의 '교육적 효과'가 대단하다고 믿었다는 점이다.[8] A. I. Bloomfield(1975)의 지적대로 해외무역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전시효과와 모방효과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은 저개발국에 관한 현대의 논자들과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H. Myint는 일반적인 평가와는 반대로 D. Ricardo를 비롯한 이후의 경제학자들보다 더욱 뛰어난 무역이론가로서, 특히 해외무역이 경제발전 혹은 후진국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탁월한 견해를 전개한 이론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A. Smith는 해외무역의 성장촉진효과가 주로 시장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노동분업과 관련된 규모의 경제에 관한 서술이 『국부론』 여러 곳에서 강조되었다. 이러한 무역의 효과는 신대륙의 발견을 통한 시장의 확대에서 단적인 예를 찾을 수 있고, 영국과 프랑스 간의 교역이 낳는 효과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마치 농촌과 도시 간의 교역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며 여기에 규제를 통한 독점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해외무역의 효과에 관한 스미스의 견해는 시장규모

8) H. Myint(1977), pp. 231-248. 다음의 논의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Hla Myint의 이러한 견해는 한 때 일본의 松井清을 거쳐 '후진국경제론', '이중경제론', '민족혁명형' 등의 주장과 관련되어 소개된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다.

가 사회적 분업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분업의 발전이 상공업의 발전에 주는 영향에 관한 스미스의 고유한 관점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시장이 아주 작을 경우에는 아무도 한 가지 일에 전념하겠다는 자극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몇몇 종류의 산업(근로)은 비록 최저류의 것이라 해도 대도시 이외에서는 영위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지게꾼은 다른 장소에서는 고용과 생계를 발견할 수 없다.…… 스코틀랜드의 高地지방과 같이 인적이 드문 지방에 산재하는 독립가옥이나 매우 작은 마을에서의 각 농업경영자는 그 자신의 가족을 위해 푸줏간, 빵집, 술집이 되어야 한다.…… 육상수송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넓은 시장이 수상수송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해안과 운하, 강가에서는 각종 산업이 자연히 세분되고 개량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개량이 그 나라의 내륙지방으로 퍼지는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두 사람의 마부가 따르고 8필의 말이 끄는 바퀴 넓은 대형마차는 약 6주 간에 런던과 에든버러 사이를 4톤이나 되는 화물을 싣고 왕복한다(『국』, 46-48)."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먼저 문명화된 것으로 생각되는 국민들은 모두 지중해 연안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이 바다는 세계에서 알려진 바다 가운데 특히 큰 내해이며 조수 간만의 차가 없고 해변이 잔잔하며 그다지 큰 파도가 없어 아직 항해술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던 그 과거 세계의 항해에 지극히 유리하였다. 이집트인, 인도인, 중국인도 모두 그들의 거대한 부를 이들 각 지역에 있는 내륙수운에서 획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아프리카에는 유럽의 발트해, 아드리아해, 지중해와 아시아의 흑해, 아라비아만, 페르시아만, 인도만, 벵갈만, 샴만과 같이 큰 대륙의 내륙 여러 지방에까지 수운상업을 보급시킬 큰 내해가 하나도 없다.

시장확대를 통한 해외무역의 성장촉진효과를 H. Myint는 두 가지 효과로 구체화시킨다. 첫째는 해외무역이 노동의 분업을 개선시켜 각 무역국가 내의 생산성을 상승시킨다는 '생산성'론, 둘째는 특정 상품의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잉여에 대한 배출구를 제공한다는 '여분배출(vent for surplus)'론이 그것이다. 전자에 관해서는 異論이 거의 없다. A. A. Young은 "경제학의 전체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유익한 일반화의 하나"라고 평가했고[9] 혹은

9) A. A. Young(1969), p. 230 혹은 G. J. Stigler(1951), pp. 185-193.

N. Kaldor(1972)는 이 정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오늘날 균형경제학의 주류가 흔히 이를 소홀히 한 결과에 관심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둘째의 '여분배출(vent for surplus)'론에 관해서는 異議제기가 많다. J. S. Mill은 '생산성'론은 받아들이면서도 '여분배출'론은 중상주의이론의 유물이라 평했고 리카도도 마찬가지였다. Samuel Hollander는 이러한 논리는 무역이 없을 경우 과잉생산능력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해외무역의 도입이 국내생산으로부터의 자원의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순이익(net gain)만 있을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리카도와는 대조를 이룬다고 본다. 그런데 식민지무역에 대한 정책을 논함에 있어 스미스는 규제를 통한 식민지무역 독점의 폐해는 식민지와 거래하는 영국 중상적 자본의 이윤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함으로써 다른 투자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 점은 앞의 가정과 모순된다고 내재적으로 비판하였다. 다만 이 경우 스미스에 있어서 식민지 독점이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기도 한다는, 즉 문제가 되는 가용상태의 자원은 생산적 노동이며 반면 자본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해석하였다. 또 스미스의 이러한 논의가 후진국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겠고 따라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스미스는 어디까지나 일반화된 논리로 전개하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10]

그러나 H. Myint는 스미스가 강조한 바와 같이 '여분배출' 논의와 '생산성' 논의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구분의 필요성은 농업은 본질적으로 노동의 분화를 허용하지 않고 일과 일 간의 분리도 제조업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것, 따라서 후진국뿐만 아니라 홀랜드와 함부르크와 같은 고도로 상업화된 국가만 제외하면 유럽에서도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발달한 '토지국가'(landed nations)도 농업의 사정은 마찬가지이므로 스미스의 논의는 적용된다는 것으로 결국 일반화된 이론으로서의 스미스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A. I. Bloomfield(1975)에 따르면 여기에 McCulloch와 Bastable(스미스의 무역이론에 대한 비우호적인 논평에도 불구하고)도 이 '여분배출' 논의에 동의를 하였다.

전체적으로 H. Myint는 해외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설명한 경제학자로 스미스를 새롭게 강조하였다. 즉 Bastable, Robbins, Viner

10) Samuel Hollander(1976), pp. 68-276. 이러한 평가는 A. I. Bloomfield도 동일하다. A. I. Bloomfield(1975), p. 477.

등을 포함한 많은 주요 경제학자들이 스미스의 무역이론을 비판한 가운데 Bloomfield는 해외무역의 성장촉진 효과에 관한 스미스 분석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Bloomfield도 스미스가 상대비용, 상호수요 혹은 국제무역에 관해 후의 고전파 논자들이 개발한 개념수단들에는 필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Myint는 거꾸로 Ricardo와 J. S. Mill이 비교우위설을 주장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자초해야 했다고 평가한다. 그것은 ① 각 나라 안의 자원은 유동적(mobile)인 반면 나라 간의 자원이동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immobile)으로 본 제한적 가정, ② 해외무역은 상대비용과 상호수요에 근거한 반면 국내경제는 노동이론과 생산비용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분리된 가치이론, ③ 국내경제가 노동이라는 극히 단일화된 생산요소만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 ④ 과도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상품의 수송비용이 없다(zero)는 단순화된 가정 등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으며, ⑤ 그 후 한편으로 고전파 경제학은 무역이론으로는 점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다루는 정태적인 이론으로 정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축적, 인구성장, 토지로부터의 수확체감 등에 관한 동태적 방향으로 이분화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스미스의 무역이론은 이러한 가정의 이분화, 이론전개의 이분화를 겪지 않고 일관되게 자연가격론에 기초해서 노동, 자본, 토지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가정을 유지하고, 특히 해외무역과 국내 경제발전 간의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구명한 탁월한 연구를 낳았다고 평가한다. Hume의 견해를 이어받았지만 그것을 더욱 발전시켰다는 것이다.[11]

Ⅳ. 농업개량과 제조업발달의 중요성

물론 상업의 발달만으로 근대 자본주의 경제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과 농업의 발달로 이어지지 않는 허상에 불과한 상업의 발달도 있다. 스미스가 제시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 예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외국상업이, 특히 식민지에 대한 상업은 유럽 다른 나라와의 교역보다 훨씬 규모가 클 정도로 중요하지만 원거리 판매용 제조업을 전혀 도입하지 않았고 이 나라들 토지의 대부분은 미경작상태에 머물러있다(『국』,

11) H. Myint, 위와 같음. 이를 그는 '스미스의 trade-cum-development 접근'이라 부른다.

490-491)."

이에 비해 이탈리아, 폴랑드르, 영국 등은 상업발달이 단서가 되어 제조업과 농업의 발달로 이어진 경우이다.

"이탈리아는 외국상업과 원거리 판매용 제조업에 의해 구석구석 경작되고 개량된 것으로 여겨지는 유럽 유일의 강국이며 대국이다. 그러나 15세기 말 - 16세기 초 이탈리아의 불행은 롬바르디아 및 토스카나 여러 도시의 상업과 제조업을 매우 감소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아직도 여전히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잘 경작된 나라에 속한다. 폴랑드르는 내란과 그 뒤 스페인의 통치로 앤트워프, 강, 브류스의 성대한 상업이 몰락했으나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잘 경작되고 또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의 하나이다. 즉 상업에 의해서만 발생한 부의 원천은 전쟁과 통치의 격변에 의해 쉽게 고갈될 수 있다. 농업의 보다 건실한 개량으로부터 나오는 부의 원천은 보다 오래 지속되며, 폭력적인 격변을 겪지 않고서는 파괴될 수 없다(『국』, 490-491)."

그런데 중세 말 영국과 다른 나라들을 다르게 한 문제의 핵심은 어떤 경우에 상업발달이 그 자체로서만 끝나고 또 어떤 경우에 제조업과 농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스미스는 그 원인을 자연적 조건과 정책의 차이에서 찾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가 영국의 경우 토지제도면에서 유럽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점을 언급한 부분은 전혀 없다.

그는 우선 토지가 기름지다는 자연적 조건, 그리고는 다시 대내외 상업이 발달하기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잉글랜드는 토양이 자연적으로 기름지다는 것, 나라 전체의 면적에 비해 해안의 넓이가 크다는 것, 또 전국을 꿰뚫고 그 가장 내륙의 몇몇 지방에 이르기까지 수상수송의 편의를 주는 항행이 가능한 하천이 있다는 것 등으로 인해 외국상업, 원거리 판매용 제조 및 이런 것이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개량의 중심지가 되는 데 적합하도록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데에 주목하였다.

그리고는 정책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즉 엘리자베스 치세 초기부터 잉글랜드의 입법부에서는 상업 및 제조업의 이익을 위해 주력해 왔고 실제 유럽에서는 여기보다 법률이 이 종류의 산업에 호의적인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 홀랜드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상업과 제조업이 이 기간중에 진보를 계속했고, 아울러 농촌의 경작과 개량도 의심할 바 없이 계속되었고, 그러나 "그것은 상업과 제조업의 보다 급속한 진보의 뒤에서 천천히 거리를 두고 따라왔다고 여겨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개량에 대한 정책적 우선도 단순한 농업육성이 아니라 농산물의 대외교역 증대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하였다.

"잉글랜드의 법률은 상업을 보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농업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몇몇 장려도 실시했다. 곡물수출은 흉작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주어 장려하였다. 또 풍년기에는 외국곡물 수입에 금지나 다름없는 관세가 부과되고, 산 가축의 수입은 언제나 금지되었다……. 그에 비해 프랑스는 잉글랜드가 두각을 나타내기 거의 1세기 전에는 외국 상업에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경작과 개량에 대해 잉글랜드와 같은 직접적인 장려를 준 적이 없었다(『국』, 490-491)."

여기에서 H. Myint의 평가를 다시 한 번 참고하자. Myint는 스미스의 이러한 견해는 이른바 경제발전에 대한 '대외지향적' 전략과 '내부지향적' 전략으로 일컬어지는 두 가지 주요한 대립적 견해들에 대한 현명한 대안을 이룬다고 한다. '대외지향적' 전략은 대외무역의 확장을 '성장의 엔진'으로 보는 반면 내부의 국내경제조직이 강화, 개선되지 않으면 외부의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소홀히 하고, '내부지향적' 전략은 아우타르키적 방법으로 국내 농업과 제조업부문 간의 '균형성장'을 촉진할 것을 주장하지만 외부의 경제변수들을 방해요인으로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국내 농업과 제조업 간의 '균형성장'에 가장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모든 나라의 가장 중요한 상업분야는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역임을 강조한다고 평가한다. 이 경우 물론 ① 대외교역과 내부교역은 상호 경쟁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며, ② 균형성장은 제조업의 보호가 아니라 농업의 확대와 진흥을 통해서, ③ 농업발전은 교통·통신수단의 개선과 가용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적(institutional) 개혁이 이루어지고 바람직한 제도(organizational framework)를 창출하는 정책과 결합되어,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이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음을 강조한다.

V. 후진국의 근대화와 스미스의 '자유무역론'

이행과정에 대외무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세계시장에 편입되었다가 식민지·반식민지 종속의 쓰라린 경험을 겪어야 했던 많은 후진지역들의 경우이다. 이 지역에 있어서도 근대화에 대외무역이 긍정적 작용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대외무역에 관해서도 스미스는 'invisible hand'를, 즉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해외무역, 특히 식민지무역에 대한 규제가 독점을 낳음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 따라서 효율의 저하를 가져옴을 누누히 지적하였다. 그는 유치산업보호를 위한 관세논의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한 규제(고율관세)를 통해 특정 제조업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빨리 확립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외국만큼 혹은 더 싸게 생산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사회의) 산업 또는 수입의 총액이 그러한 규제를 통해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하였다. "그것은 단지 자본투자의 방향을 바꿀 뿐"이라는 것이다(『국』, 4편 2장). 마찬가지 맥락에서 스미스는 수출보조금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국내재화의 수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자연적인 상태로 두었을 경우보다 이익이 덜 되는 방향으로 무역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상주의적 무역규제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계속했다. 자유무역은 본국에 뿐만 아니라 무역상대국에도, 예컨대 식민지에도, 그리고 제3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했다. 물론 그가 무조건적인 자유무역론자는 아니었다. 항해조례와 같이 국방상의 필요, 극히 긴급한 경우의 곡물수출 금지, 정부재정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 줄 경우, 보복관세 등과 같은 경우에는 관세부과를 인정하였다(『국』, 제4편).

여기에서 식민지에도 이익이 된다는 그의 논의에 관해서 우리는 좀더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식민지이론에 관한 스미스와 그 후계자들의 견해들에 관해서는 그 후 많은 연구가 있었다. 대체로 그 평가는 '자유무역제국주의'로 정리가 된다.[12] 한편 K. Marx의 경우는 1850년대에 인도에 관한 검토에서 인도의 국가적 토지소유, 공동체적 토지소유는 영국의 식민지정책에 의

12) 예컨대 B. Semmler, *The Rise of Free Trade Imperialism*, 1970; R. N. Ghosh, *Classical Macroeconomics and the Case for Colonies*, 1967; E. M. Wnslow, *The Pattern of Imperialism*, 1948 등이 그 예이다. Arthur I. Bloomfield(1975), p. 476.

해 해체되었고 이것은 역사의 진보라 파악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자유무역 제도를 찬양하였다. 엥겔스도 프랑스의 알제리 정복, 아메리카의 멕시코 정복,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배를 동일한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그러나 1860년대 말 아일랜드에 대한 언급에서 이러한 입장은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1867년 11월 30일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일랜드인에게 필요한 것은 ① 자결 및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② 아일랜드인 스스로에 의한 농업혁명, ③ 이 두 가지를 쟁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영국에 대한 보호관세 등이라고 한 바 있다.[13]

그러면 먼저 스미스와 발전도상국이 현실이 어떻게 관련되느냐가 우선 구명되어야 할 것이다. M. Avila(1976)는 이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한다. 『국부론』이 경제발전의 일반적 본질과 요인에 대한 탐구일 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 내부도 선·후진의 두 개 지역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가 대표적인 예라고 본다. 발전하던 글래스고와 에딘버러가 있는 반면 천연자원이 결여되고 봉건적 농업관계가 강하게 유지되던 Highland도 있었다. 도로, 도시, 자본, 교육설비, 금융자원, 항구, 체신서비스, 그리고 지역필요에 대응할 당국 모두 결여되어 있었다. 대중에게도 현실에 대한 아무런 이니셔티브도 야망도 없었다. 게다가 외부로부터의 지도, 금융지원, 기업 유입도 최소에 머물고 있었다. 오히려 인재의 대외유출만 누적될 뿐이었다. 잉글랜드도 사정은 별 차이가 없었다. 주목할 만한 기술변화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산업국가의 도래가 멀지는 않았으나 아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스미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모든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관점에서 무역에 관해서도 자유무역 주창자였음은 분명하다. 물론 조금 다른 해석, 혹은 시간상의 변화와 함께 스미스의 생각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하겠다. W. D. Grampp(1979)는 독립 전후의 미국에 있어서 대다수의 미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연방주의자들은 자유무역을 전적으로 반대했는데(나라를 약화시키고 그 독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스미스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반드시 다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스미스가 국방을 약화시키는 한 자유무역 확대에 반대했음을 주목하고 항해조례의 경우와 같이 일종의 '국가이성'(reasons of state)이 무역제한을 정당화할 것, '보이지 않는 손'의 커다란 목표는 국내자본 stock-해외 영국자본도 아닌-의 증대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스미스가 언명했다는 것이며, 이 자본이 스미스의 흥미를

13) 이에 관해서는 졸고(1993a, pp. 74-79)에서 검토한 바 있다.

끈 것은 국력에 가장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W. D. Grampp는 주장했다. 스미스뿐만 아니라 Hume을 포함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생각에는 민족주의가 주요한 요소였다고, 당시 고전파 학자들을 세계주의자(cosmopolite)라는 비난에 대해 그들은 스스로 애국자라 반박하였다는 것이다.

세계경제에서 혹은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후진국 특히 식민지의 문제는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의 문제이겠지만 정치적으로 혹은 궁극적으로는 자주권의 회복, 즉 정치적 독립의 문제로 모아질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 미국의 독립에 관한 영국 지식인집단의 입장분화 속에서의 스미스 견해를 정리한 D. Stevens(1975)를 참조할 수 있다. 당시 영국에서는 미국문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Edmund Burke는 명백한 Locke주의자로서 대표권 없는 의회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식민지 거주자들이 불평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정치적 독립을 허용해야 하며 다만 영국으로서는 이윤의 여지가 큰 미국과 상업적 유대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Gloucester대학의 학장이었던 Josiah Tucker는 식민자들에 동정심(이해)을 가진 것은 전혀 아니었지만 분리정책이 가장 영국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식민자들은 독립을 획득하든 않든 감사하지 않고 따라서 통치를 할 수가 없고 적대심만 가질 것이라 보았다. 아메리카식민지는 영국의 목에 걸린 맷돌처럼 무역이나 조세수입, 이익은 거의 없고 부담만 크고,[14] 영국으로서는 낡은 중상주의적 우대조치 없이도 영국상품은 세계 어디에나 판매 가능하고 천연자원 조달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북미식민지를 완전히 독립시켜 버리자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이 양극단을 형성하고 그 중간에 다양한 견해들이 편차를 이루며 존재했었는데, 한때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였던 Thomas Pownall은 Burke와 가까우면서도 당장 독립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독립에 관해 협의를 해 가며 궁극적으로는 동의해 주어야 할 것이라 보았다.

이 속에서 스미스는 원래 Burke와, 특히 Pownall과 가까운 견해여서 독립을 점진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이었고 Tucker의 생각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식민지에나 영국 본국에나 더 나은 해결책으로는 단일한 제국연합(imperial union)을 지지하였다. "자발적으로 식민지를 포기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이며 식민지문제의 해결책은 세금을 없애는

14) 영국 경제사학계에서는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 견해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졸고(1993b)를 참조하라.

것이 아니라 세금부담만큼 의회에 대표권을 주는 것"(연방이 아니라 정치적 연합(union))이라 보았다. 즉 스미스는 철저히 재정의 관점에서 접근했으며 미국의 조세수입이 더 많아지면 대표권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union계획이 몽상적임이 드러나면 영국은 식민지 유지비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해서 결국 스미스는 Burke의 입장에서 멀어져서 Tucker의 분리주의에 동조하였다. 그런데 스미스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가 당대 최고의 독창적이며 분석적인 사상가임을 보였다(D. Stevens).

스미스는 미국에는 훌륭한 자연조건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지도력과 성장하는 노동력, 무엇보다 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상황이 좋을 경우 훌륭히 농업의 발전과 제조업, 상업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런 터에 자립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자유를 박탈당하면 이 모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식민자들이 지금 본국이 그런 일을 강요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에 혼란의 시작이 있다고 보았다. 즉 영국정부의 상업정책은 식민지 제조업의 발전을 억제하며 무역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 가장 성스러운 인간 권리의 침해'라는 것이다(『국』, 제4편 7장). 결국 가장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도 식민지의 독립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15] 앞에서 본 마르크스의 입장변화와 결론은 다르지 않다.

Ⅵ. 결 론

본고에서는 봉건사회로부터 근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에 관한 A. Smith의 견해를 정리하면서 영국으로부터 최근 신흥공업경제들에 이르기까지의 근대

15) 독립 이후 미국에서는 스미스의 저작이 더 많은 호응을 받았으나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B. Franklin은 스미스의 원리에 신념을 가졌고 전파하는 데에 노력을 했다. 자유무역론을 옹호했고 유치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반면 A. Hamilton은 스미스의 『국부론』을 더 많이 연구했음에 틀림없지만 스미스의 원칙에는 반대하였다고 한다. 스미스는 미국의 농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시했으나 해밀턴은 농업경제는 허약함의 상징이므로 미국은 제조품을 영국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했고 따라서 미국의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의회가 중상주의적 조치를 입법화하도록 촉구했다. 그의 보고서는 당장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국립은행의 설립, 사실상의 보호관세 부과를 통해 그 중상주의적 정신은 Jefferson의 자유주의, 중농주의에 대해, Franklin과 Smith의 경제적 자유주의에 승리를 거두었다고 D. Stevens는 평가했다. 이러한 D. Stevens의 평가부분은 앞의 W. D. Grampp와는 다른 것이다.

화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근대사회, 즉 근대 자본주의 경제를 단순히 물적인 공업화로만 파악하지 않고 사회계급의 변화 혹은 사회구성의 변화로 파악하더라도 근대로의 이행에 관한 A. Smith의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 있고 현실을 적확히 설명하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이행의 계기를 그는 농촌이 아닌 중세도시 중심의 상업에서 찾았다. 안전성과 수요증대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은 농업의 발전으로부터 국내제조업, 그리고 대외무역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것이 사물의 자연적 질서이다. 그러나 현실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 그 반대였다. 인간의 여러 제도가 자연적 성향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 방해요소는 토지소유자와 경작자가 분리되고 전자가 후자를 지배한 봉건적 토지소유제도였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양자 모두 토지에 대한 생산적 투자를 하지 않았고, 할 수가 없었다. A. Smith의 인식에서는 영국도 이 점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A. Smith의 이러한 견해는 중세도시가 자유를 준 것은 틀림없지만 그마저도 봉건 말기에는 길드의 규제 속에 더 이상 자유의 진원지로서 생산력 발전의 계기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관점과 대조를 이룬다. 봉건사회의 胎內, 농촌에서 새로운 사회의 계기가 발전했다는 변증법적 관점, 영국경제사에 관한 실증적 인식과 대조를 이룬다. K. Marx, M. Dobb, 大塚史學의 관점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또 '아메리카형'과 '프러시아형'의 대립구도 속에 줄기차게 '아메리카형'이 모색했던 실천적 모색들과도 대조를 이룬다. 한편 농촌에서의 수공업발전을 중시하지만 이것도 원거리교역, 해외무역을 통해 발전했다고 보는 1970년대 이래의 프로토공업화론과는 대체로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프로토工業化論의 경우 "빠르면 16세기 이래 저렴한 노동을 공급할 수 있는 농촌지역에서 반농반공의 겸업체제로 수출시장을 향해 생산하는 수공업이 발달했으며 이를 공업화의 제1단계라 한다면 산업혁명은 공업화의 제2단계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프로토공업회의 중심추진력을 시장의 힘, 특히 해외시장을 위한 생산으로 보고 있다.[16]

봉건 말기 이행의 출발을 이루는 임노동자계급으로 중세 농민의 변신은 농업 내부의 '압출(push)요인'과 농업 외부의 '흡인(pull)요인'에 의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자본의 본원적 축적', '농민층의 양극분해', 그래서 '국

16) Franklin F. Mendels(1972, 築塚信義 역, 1991)에 실린 논문들 혹은 L. A. Clarkson (1990)에 실린 논문들 참조.

지적 시장권의 형성'은 이 중 '압출요인'에 주목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과연 토지로부터 농민의 대량분리가 가능할까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다. 농업 외부에서의 '흡인요인'이 없을 경우 농업인구는 결국 다시 토지에 적체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의문에 A. Smith의 견해는 개략적이나마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영국의 원축과정을 보면 농업생산자로부터 토지수탈과 그들의 임노동자화가 반드시 동시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원축기는 산업혁명까지의 전기와 그 이후의 후기로 나눌 수 있고 그 특질에 큰 차이가 있었다. 제1차 종획운동에서 토지를 잃은 직접생산자가 노동자로 대량 전화한 것을 마르크스가 강조했으나 실은 몰락농민의 다수는 실업자, 걸인, 강도, 부랑민 등 유민(流民)화했다. 산업혁명을 통해 영국은 세계시장 편성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그 세계시장이 각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강한 규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제 비로소 영국은 선진국형, 다른 나라들은 후진국형으로 특징지어졌다. 17세기 말-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는 뚜렷이 성장하는 세계시장을 향해 모직물을 생산하는 매뉴팩처가 한층 발달했고, 곡물수출 증가와 함께 자본가적 농업경영이 폭넓게 전개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2차 종획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때 직접생산자의 무산자화가 대량으로 진행되고, 이들은 1차 원축과는 달리 매뉴팩처와 자본가적 농업경영에 흡수되어 노동자로 전화했다.

생성기의 세계시장에 적극 대응한 영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선진국의 위치를 획득했다. 그 때문에 사회적 부가 점진적이기는 하나 자본으로 전화할 수 있는 자금으로서 '상인자본'적으로 축적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영국 중심의 세계시장에 편입된 나라들에서는 소위 '자유무역' 강제를 받으면서 봉건제의 해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모순과 (반)식민지화의 위기를 심하게 겪었다. 이에 농민수탈과 외채모집을 중심으로 하면서 국가적으로 자금을 집중하고 이를 기초로 선진제국의 기술수준을 이식, '위로부터'의 자본주의화 정책을 서둘렀다. 이러한 역사과정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스미스의 견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제조업이 발달하는 과정은 농업 내부에서 잉여가 축적되고 그 생산물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달해 온 경로가 있다. 대체로 공업화의 내포적 경로라 할 수 있다. 리즈, 핼리팩스, 세필드, 버밍검, 울햄턴 등이 예이다. 한편 (스미스의 표현 그대로 옮기면) '외국제조업을 모방하여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고 외

국상업의 자본을 이용하면서' 발달해 온 경로가 있다. 공업화의 외연적 경로이다. 베네치아, 폴랑드르, 리용, 스피털피일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 스미스는 후자의 경로가 유럽근대사에서 더 우세하고 보편적이라 했다. H. Myint와 A. I. Bloomfield는 스미스의 이러한 인식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learning-by-doing'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해외무역이 가져다 주는 전시효과와 모방효과의 긍정적 작용을 일찍이 지적한 것으로서 높이 평가하였다.

스미스에 의하면 해외무역의 성장촉진효과는 주로 시장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시장의 규모와 분업의 발전에 관한 그의 고유한 견해에 의해 성립한다. 주지하듯 스미스는 한 나라 국민의 부는 사회적 분업의 진전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고 그 분업의 범위는 항상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먼저 문명화된 것으로 생각되는 국민들은 모두 지중해 연안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이집트인, 인도인, 중국인도 모두 그들의 거대한 부를 이들 각 지역에 있는 내륙수운에서 획득하고 있었다.

스미스가 말하는 국제무역의 성장촉진효과를 H. Myint는 '여분배출'론과 '생산성'론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스미스가 경제성장과 해외무역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경제학자였다고 평가한다. 스미스의 무역이론은 후의 Ricardo, Mill과 달리 오히려 가정에 있어서 국내외 경제에 관해 자원의 유동성, 가치론, 생산요소 구성 등의 이원화를 겪지 않고 일관된 이론을 전개하면서 해외무역과 국내 경제발전 간의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탁월하게 구명하였다고 본다.

셋째, 대외상업의 발달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번영에 그칠 경우 허상에 불과하고 오래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상업의 발달이 국내 제조업과 농업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대규모 대외거래를 위해서는 해안과 하천이 발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정책적인 先導가 필요하다. 잉글랜드의 경우 엘리자베스 치세 초기부터 상업 및 제조업의 이익을 위해 주력해 왔고, 이것은 홀랜드를 포함한 유럽 어느 나라, 지역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스미스에 있어서는 '양극분해론'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소유제도의 차이는 크게 시야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시 이러한 산업정책을 추진할 주체로서의 국민국가의 존재를 다시금 부각시킨다.

넷째, 근대로의 이행에 대외무역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말할 때 과거 대외교역을 통해 식민지·반식민지 종속을 겪어야 했던 많은 지역들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지배국과의 관계가 근대화라는 역사적 경로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근대로의 이행에 관해 고찰할 때에 이러한 문제까지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과거 모든 사회적 관계를 모순의 관계로 설정했고 따라서 국민경제 간의 관계도 지배·피지배 혹은 착취·피착취의 관계에서만 파악했던, 정치우위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반성이 있을 수 있다. 국민경제 간의 관계를 등가교환을 전제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과정이듯 뒤떨어진 문화지역으로 앞선 문화의 이전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식민지 지배의 과정을 생각할 수도 있다. 堀和生(1989), 中村哲(1990), 안병직(1989) 등에서 볼 수 있는 과거 일제의 한국 식민지 지배에 관한 최근의 새로운 해석들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자연법 사상에 철저하여 경제적 자유주의의 원형을 이룬 스미스의 견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줄 것이다.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정부의 모든 개입을 반대하는 관점에서 무역에 관해서도 자유무역 주창자였다. 이러한 시각으로부터 스미스는 자유무역이 모든 무역당사자, 식민지에조차 이익을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북미식민지의 독립에 관해 당시 영국 지식인집단의 입장분화 속에서 그는 식민지는 독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우리는 이 점을 다시 한 번 주목하여야 한다. 그는 북미식민지가 자립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자유를 박탈당함으로써 농업과 제조업, 상업이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상실하게 하며 식민지 지배가 혼란의 시작이라 간주했다. 영국정부의 정책은 인간의 자유, 가장 성스러운 인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식민지의 독립은 필연적인 것이라 보았다.

스미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빌리자면 교환은 인간의 본래적인 성향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교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등가교환을 전제로 하며, 등가교환은 시장이 가장 정상적으로, 완전경쟁적 형태로 작동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시장도 배급과 할당, 명령과 관습 등과 구별되는 자원배분의 하나의 방식이며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하나의 제도형태이다(J. R. Hicks). 이 시장이란 제도에는 끊임없이 시장실패의 요인이 작용하며 또 그 외부에서 비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해 들어온다. 하물며 국민경제

간에는 비경제적 요인(정치적·군사적 요인 등)이 작용하며 그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발현된 것이 제국주의-식민지시대가 아닐까? 그리고 그 때만큼 노골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날 혹은 장래 어느 때에도 부분적으로나마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비단 어느 한 나라와 한 나라(일본과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가 다 함께 겪었던 제국주의시대와 식민지시대는 그 이후의 시대와는 다른 역사적 특성을 가진 시대로서 그 비인도주의적 특성, 스미스가 표현한 바와 같이 농업과 상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상실하게 하며 가장 성스러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 시대임을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이것은 일본과 한국의 식민지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한국근대사에 있어서 해방 이전과 이후를 무매개적으로 '연속적'으로 파악하려는 제 견해의 문제점을 스미스 연구를 통해 새롭게 인식한 것은 본 연구의 또 다른 결론이다.

參 考 文 獻

1. 권병탁, 『일반경제사』, 박영사, 1986.
2. 김재훈, "일제식민지시대와 본원적 축적", 『한국경제의 구조』(공저), 한울출판사, 1993a.
3. _____, "영국경제사에서 19세기 제국주의-식민지 문제", 『한국노동연구소발표논문집』 93-7, 성균관대 부설 한국노동연구소, 1993b.
4. 김종현, 『경제사』, 경문사, 1987.
5. 안병직, "식민지조선의 고용구조에 관한 연구-1930년대의 공업화를 중심으로",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1989.
6. 堀和生, "1930년대 조선공업화의 재생산조건",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1989.
7. 石板昭雄, 長岡新吉 공저, 이병천 역, 『一般經濟史』, 동녘, 1985.
8. 松田智雄 저, 장상환 역, 『西洋經濟史講義』, 한울, 1983.
9. 吳承明, "經濟學理論與經濟史研究", 『經濟研究』, 北京, 1959.
10. 中村哲, 안병직 역, 『세계자본주의와 이행의 이론』, 1990.
11. Avila, M., "Smith and Undeveloped Nations", *Review of Social Economy*, Vol. 34, No. 3, Dec. 1976.
12. Bloomfield, Arthur I., "Adam Smith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A. S. Skinner, T. Wilson, eds., *Essays on Adam Smith*, 1975.

13. Clarkson, L. A., ed., *Industrial Revolution A Conpendium*,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Inc., 1990.
14. Dobb, M.,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1946(김대환 편역, 『자본주의이행 논쟁』, 동녘, 1980).
15. _____, "스위지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김대환 편역, 『자본주의이행 논쟁』, 1980).
16. Grampp, W. D., "Adam Smith and the American Revolutionist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11, No. 2, Sum. 1979.
17. Hicks, J. R., *The Theory of Economic History*, Oxford, 1969.
18. Hollander, Samuel, *The Economics of Adam Smith*,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6.
19. Kaldor, N., "The Irrelevance of Equilibrium Economics", *Economic Journal*, Dec. 1972.
20. Marx, K., 김수행 역, 『자본론』, 비봉출판사, 1989.
21. Mendels, F. F. and R. Braun et al., 篠塚信義 외 편역, 『西歐近代と農村工業』,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1991.
22. Myint, H., "Adam Smith's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Perspective of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a*, Vol. 44, August 1977.
23. Skinner, A. S., *Adam Smith;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History*, Skinner, A. S. and T. Wilson, eds., *Essays on Adam Smith*, Oxford Univ. Press, 1975.
24. Smith, A., 유인호 역, 『國富論』, 동서문화사, 1979.
25. Smith, A., 이병천 역, 『國富論』, 동녘출판사, 1985.
26. Stevens, David, "Adam Smith and the Colonial Disturbances", *Essays on Adam Smith*, A. S. Skinner and T. Wilson, eds., 1975.
27. Stigler, G. J., "The Division of Labor is Limited by the Extent of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June 1951.
28. Young, A. A.,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Progress", K. J. Arrow and T. Scitovsky, eds., *Readings in Welfare Economics*, 1969.